

국 내 소 식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에너지효율성제고 외면한 정책발상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아무런 대책없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절약정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권 폐지검토의 철회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획단이 정부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소방서 등 5개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기획단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폐지하고 대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이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산업안전공단으로 검사권을 이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공단은 기획단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 간담회 실시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자 세미나를 산업안전공단 주최로 개최하거나 사전에 간담회 준비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획단의 「안전관리실효성 제고방안」이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련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안전관리실효성 제고방안에서 기획단은 전기·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는 민간기관을 육성하여 이원화 체계를 구축,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안을 세웠으면서도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안전관리만은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국내에는 약 10만기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60%의 에너지가 보일러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일러의 안전규제완화방안 자체가 안전관리차원에서만 검토돼야 할 사안이 아닌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검사관리까지도 수반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안전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은 기획단의 신중한 검토 부족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편 보일러관련 제조회사들마저도 기관이기주의에 기획단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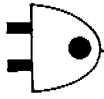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천8백억원 지원

앞으로 절약형 전기이용기기 및 설비의 보급확대를 비롯 에너지절약 투자촉진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천8백억원이 조성, 저리 융자로 지원된다.

통상산업부는 올해 집단 에너지분야 9백5억원, 산업체 건물 주택 절약분야 8백95억원 등 총 1천8백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투자지원금을 조성해 이자율 5~7%로 3년 거치후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저리 융자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절약형 전기이용기기와 설비의 보급촉진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고효율 전동기 소형 대체냉방기기 스팀 터빈 등 전기절약기자재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신규 추가하는 것을 비롯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전기냉방기기를 가스냉방 빙축열 지역냉방 등 대체냉방기기로 개선하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체 및 건물분야의 열병합발전소 건물투자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종전보다 높일 계획이다.

또 산업체의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투자」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개시해 절약 효과가 큰 복합 절약 투자를 촉진하고 소액 절약투자자에 대한 편의 도모를 위해 융자투자를 간소화하는 한편 시·도가 주관



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 올해 시범응용 후 점진 확대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분야의 중앙·지방간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통상산업부가 집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1천8백61억원이 지원돼 93년도 1천2백32억원에 비해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지역이 총지원액의 47%인 8백63억원을, 대구 광역시가 14%인 2백54억원을 각각 차지해 2개 시·도의 사용액이 전체의 61%에 달한 반면 충청북도, 제주도 등 지역은 불과 10억원 미만의 지원액을 사용해 에너지절약투자의 지역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1·2급 승강기자격시험 시행계획 확정

새로 신설되는 승강기기사 1·2급 자격검정 시행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0일 「국가기술자격법」의 시행령을 개정, 산업 응용분야에 승강기기사 1·2급 제도를 새로 신설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새로 확정된 승강기기사 1·2급 자격검정은 오는 7월 31일부터 3일간 응시원서를 접수, 8월 27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기시험을 거쳐, 11월 2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격등급별 출제범위와 수준은 기사 1급은 4년제 대학교 졸업정도의 수준으로서, 공학기초와 그 응용능력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해 출제된다.

기사 2급은 전문대학교 졸업정도의 수준으로서 기술기초와 그 적용능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광성계측기, 디지털 메다릴레이 개발

전기계측기기 전문업체인 광성계측기(대표: 임병권)는 최근 측정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이용효율을 향상시킨 디지털 메다릴레이를 개발, 선보였다. 「디지털 메다릴레이」는 측정의 정밀화 및 간편화를 제

고, 4행의 디지털 표시 및 디지털 S/W로서 상황설정이 가능토록 개발돼 압력, 온도, 속도, 수량, 전력역률, 주파수, 전압, 전류의 정밀한 측정 및 감시가 요구되는 제어회로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측정의 응용 및 편의성을 위해 독립된 3개의 릴레이를 사용, 개별적인 동작이 HI, GO, LO의 점접출력을 가능토록 하고 잘못 설정 방지차원에서 HI 설정치가 LO 설정치보다 낮을 경우 여러 메시지를 나타나게 개발하는 한편, 이 제품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환장치를 부가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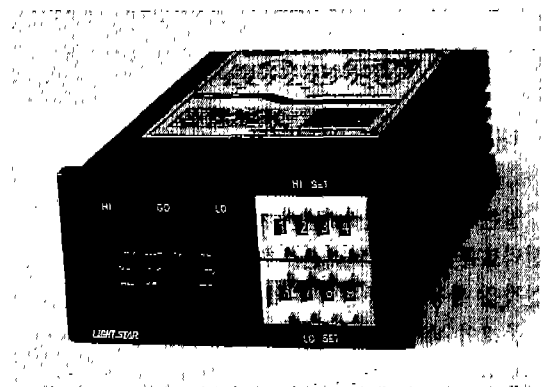
해 외 소 식

일본, 내년 4월부터 전기료 일부 자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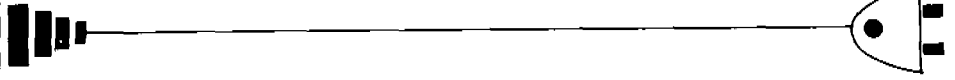
일본 통산성은 할인요금 및 자가발전 기업의 전기요금을 내년 4월부터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내년 정기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정용 심야요금 할인 및 산업용,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의 할인 인가제도를 폐지해 신고제로 전환하고 자가발전 기업의 전기요금은 인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신고제로 전환될 요금은 주간요금을 인상시키는



▲ 디지털 메다릴레이



는 대신 야간요금을 70%로 낮추는 시간대별 요금 전기온수 이용을 조건으로 심야요금만 70% 인하하는 심야전력요금 등 가정용 요금 할인 제도를 비롯 공장이나 건물용의 「수급조정계약」에 의한 계절 및 시간대별 각종 요금 등이다.

과충전 방지회로 부착된 솔라에너지

최근 일본 카가쯔우사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세련된 디자인의 솔라에너지등(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시공이 간단하며 이동설치가 쉽다.

또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조명의 밝기와 점등시간 등을 특별사양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과충전·과방전방지 회로가 부착되어 있고 인버터 점등방식이며 재해시 비상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퇴색방지효과 탁월한 할로겐 램프

일본 미쓰비시전기오스림사는 최근 자외선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비, 램프필브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특수 유리를 채택한 할로겐램프 하로스타를 개발·시판에 나섰다.

부엌등에서 사용되어 온 기존의 램프는 전시되어 있는 상품을 퇴색시켜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렸으나, 이 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종래보다 80%의 퇴색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가격은 9백엔에서 1천8백엔이며 미술관 등에도 적당한 상품이다.

내열성 우수한 배선덕트

일본 星和전기는 배전반, 제어반 등에 사용되는 배선덕트를 중심으로 배선보호 재료에 관한 다년간의 실적을 활용해 6종류의 내열성 배선덕트를 개발했다.

종래의 배선덕트는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이용, 사용온도가 마이너스 20°C에서 60°C였지만,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폴리카보네이트수지를 이용해 -20°C

에서 125°C까지 사용범위를 넓혔다.

용도로는 내열성을 중시하는 배전반, 제어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회원(사)소식

축하드립니다.

- 본부 현홍기이사 장녀 결혼식(2. 18)
- 서울 남동지부 박오술회원 회갑연(2. 25)

대전지역 전기인 조찬회

- 일 자 : 1995년 2월 22일 (수)
- 장 소 : 대전 사또호텔
- 주 관 : 한전 대전전력관리처
- 참 석 자 : 20명
- 토의내용 : 충남지역 중소기업체 지원방안, 대전과학센터 조성 등 논의

대전 전기기술자 협의회 개최

- 일 자 : 1995년 2월 23일 (목)
- 장 소 : 협회 대전지부 사무실
- 토론내용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의무공용제 폐지건
- 강 의 : 소수력 발전의 운영 및 전망(정운영)

